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6.05.22~2026.05.29

구분	시장 동향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ESG 펀드 규제로부터 에너지 생산기업 보호 추진 (2026.05.23, Bloomberg) <p>프랑스 정부는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개편 협상에서 ESG 투자 규정 완화를 제안. 석유·가스 기업도 기후전환 계획이 있을 시, 기후전환펀드 카테고리에 편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A,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 \$2.2T로 화석연료 투자 압도 (2026.05.28, greentechlead) <p>IEA 보고서에 따르면 '26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는 +5%YoY 증가한 \$3.4T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 중 \$2.2T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 이는 화석연료(\$1.2T) 투자의 약 2배에 해당</p>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정부, \$772M 규모 그린본드 발행 계획 (2026.05.26, Bloomberg) <p>케냐 국가 재정부는 태양광 냉체인·재생 농업·기후 적응 등 지속가능 프로젝트 재원 조달을 위해 \$772M 규모의 농업 특화 그린본드를 내년 말까지 발행할 계획. 탄소 크레딧 수익을 담보로 기관투자자 및 해외교민 펀드를 유치할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 6개국, EU에 중공업 탄소 비용 부담 완화 요청 (2026.05.27, FT) <p>체코·폴란드·불가리아 등 6개 회원국이 EU에 높은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 위기를 이유로 추가 무상 탄소배출권 요청. 자국 중공업을 탄소 비용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촉구</p>
Corpo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X Power, 캘리포니아 태양광·저장 프로젝트에 \$4.95B 조달 (2026.05.26, ESG Today) <p>IPX Power가 캘리포니아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태양광·에너지 저장 사업인 '다든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자금으로 \$4.95B를 조달. 프로젝트는 휴경 농지에 1.15GW 태양광·4.6GWh 배터리 저장 설비를 구축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OM, 법인 소재지 텍사스 이전 주주총회 승인 (2026.05.27, FT) <p>ExxonMobil이 주주총회에서 71% 찬성으로 뉴저지→텍사스로의 법인 재편입을 승인받음. 텍사스의 친기업적 법률 아래 주주 행동주의 차단에 유리한 법적 환경을 확보</p>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F&P, 연기금의 그린 에너지 투자 확대 준비 완료 (2026.05.22, ENERGYWATCH) <p>덴마크 F&P(보험·연금 학회)에 따르면, 덴마크 연기금들의 그린 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준비가 완료. 덴마크의 녹색 전환이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하며, 연기금들의 투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 F&P는 덴마크가 상당한 해상풍력 잠재력과 독일 시장을 겨냥한 그린수소 개발 기회를 보유하는 등 독보적 위치에 있다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LUPK, 임팩트 투자 비중 확대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강화 계획 (2026.05.26, IPE) <p>스위스 연기금 LUPK는 사모펀드 임팩트 투자 비중을 현행 15%→'28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 또한 인프라 포트폴리오 내 재생에너지 및 기후 솔루션 투자 비중도 현행 60%→'28년까지 3분의 2 이상으로 높일 방침. 스위스 연기금들 사이에서 임팩트 투자가 드문 관행임을 감안할 시 주목할 만한 행보라 평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유럽 주요 연기금, EU의 북극 시추 금지 완화에 반대 입장 (2026.05.27, Reuters) <p>노르웨이 KLP 등 연기금을 비롯한 북유럽 금융기관 12곳은 EU의 북극 시추 금지 완화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유럽위원회에 제출. 북극 개발은 생산까지 10년 이상 소요돼 현재의 이란 전쟁발 에너지 위기 해결에 실효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와 장기 에너지 안보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는 입장</p>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